



2020년 1월 8일 | Equity Research

[반도체] 퀄컴 CES 컨퍼런스 후기: 차곡차곡, 촘촘하게

투자의견

Overweight

반도체 애널리스트 김경민, CFA

clairekm.kim@hanafn.com

- Las Vegas 기준, 1월 6일 오전에 퀄컴 컨퍼런스 개최. 핵심주제는 5G 기술의 구현. 스냅드래곤 모바일 칩, 노트북용 칩, 자율주행용 솔루션까지 폭넓게 적용
- 퀄컴은 이미 지난 2019년 12월 초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Tech Summit을 통해 스냅드래곤 모바일 칩 신제품 발표
- CES 2020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폰용, 노트북용, 클라우드용, 자동차용 등으로 스냅드래곤 시리즈의 적용 분야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

- (1) 스마트폰용: 5G 스냅드래곤은 오포, 샤오미 Mi 10, 모토로라 폰에 장착. 모바일 AP와 모뎀칩, RF, Wi-Fi 6까지 솔루션 판매 확대
- (2) 노트북용: 레노버에서 5G Yoga 노트북 출시. mmWave & Sub-6 GHz 지원. 배터리 24시간 지속. 가격은 \$1,499
- (3) 클라우드용: Edge-cloud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추론(inference) 프로세서 A100 개발. 7nm 선단공정 파운드리 적용
- (4) 자동차용: 업계 내 포지션 강화. 자동차용 텔레매틱스와 블루투스 칩 시장 점유율 1위. 스냅드래곤 cockpit 플랫폼이 완성차 19개사에 의해 채택. Land-Rover 차량 인포테인먼트에 퀄컴 제품 적용
- (5) 자율주행: 현재 기술로 레벨 2+ 솔루션 제공. 레벨 4+ 지원 플랫폼은 2023년 양산 목표. C-V2X 시장 선도 추진. Car-to-cloud 솔루션 제공(인포테인먼트, 텔레매틱스, 디지털콕핏 결합)

결론: 퀄컴은 4G 전환기에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와 모뎀칩 시장 주도. 이후 스마트폰 제조사의 모바일 AP 및 모뎀칩 내재화 영향으로 입지 약화. 5G 전환기에 과거와 동일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기 어려우나 4G-5G 멀티모드 및 mmWave 기술에서 강점 보유.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'이삭 줍기'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와 같은 행보는 퀄컴의 기업가치에 긍정적

국내 반도체업종의 투자 아이디어: 5G 전환기에 퀄컴의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는 경우 3G 전환기부터 퀄컴과 공생관계로 자리잡은 삼성전자(시스템LSI)와 4G 전환기에 퀄컴을 주요 고객사로 기 확보한 리노공업의 실적에 긍정적

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

-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

- 기업의 분류

BUY(매수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Neutral(중립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-15%~15% 등락
Reduce(매도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-15% 이상 하락 가능

- 산업의 분류

Overweight(비중확대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Neutral(중립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
Underweight(비중축소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 이상 하락 가능

투자등급	BUY(매수)	Neutral(중립)	Reduce(매도)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율	89.6%	10.4%	0.0%	100.0%

* 기준일: 2020년 1월 7일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경민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- 당사는 2020년 1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경민)는 2020년 1월 8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